Archiworld

DESIGN & DETAIL
建築世界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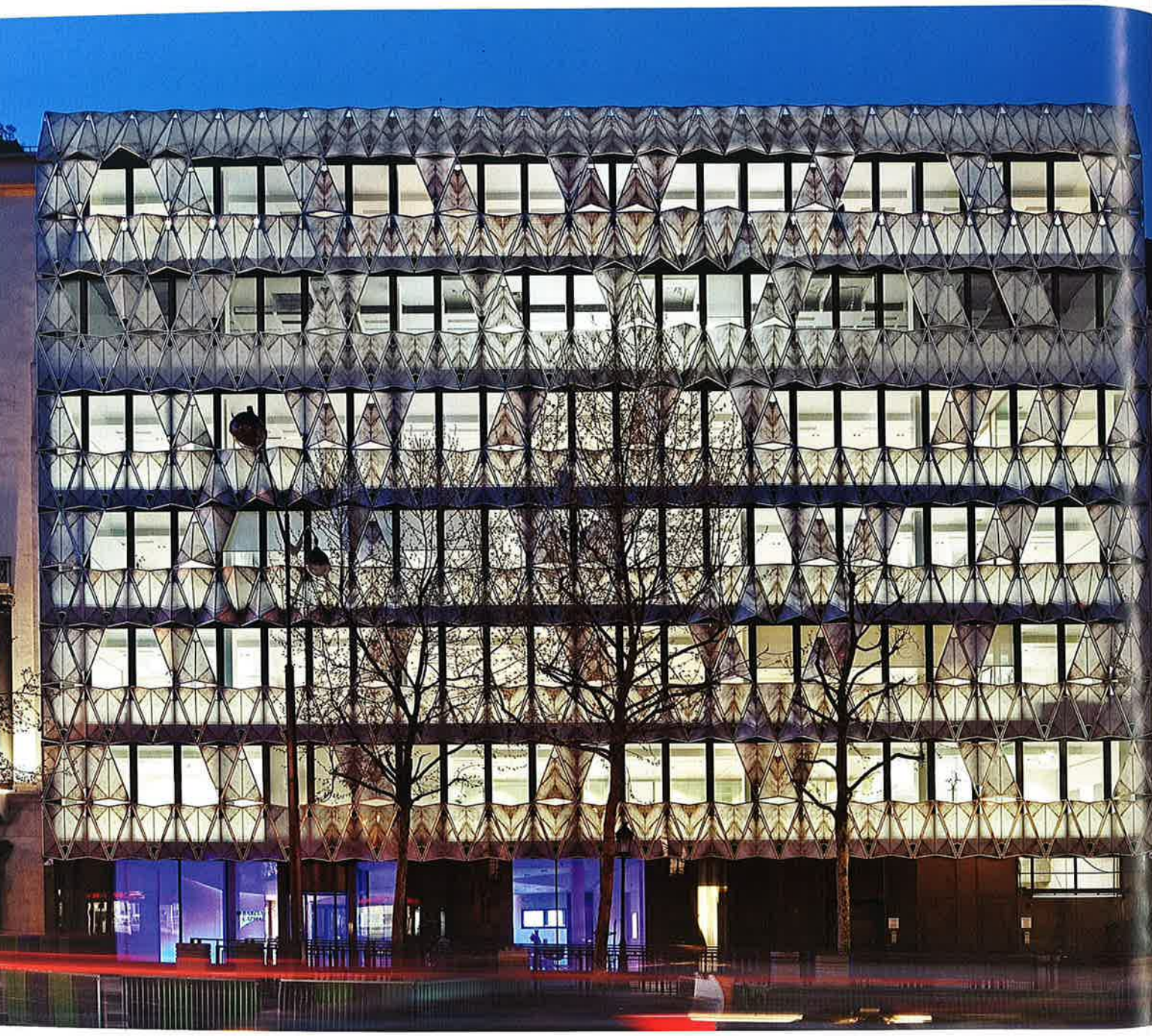
Special Retail / Commercial facility

ISSN 1227-9838

ORIGAMI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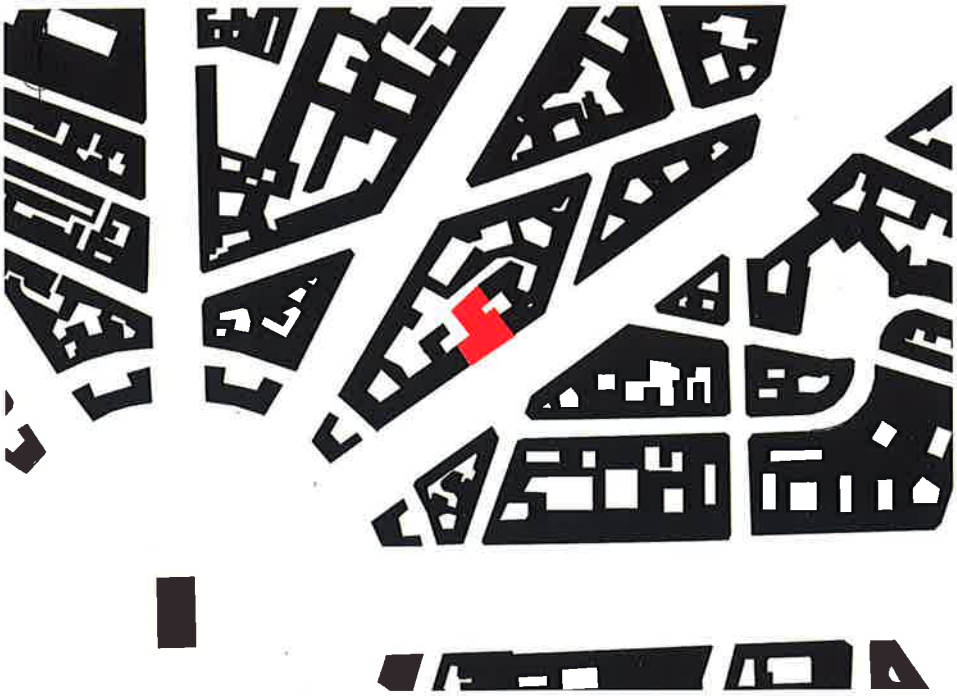
종이접기 빌딩

Manuelle Gautrand Architecture / Manuelle Gautrand
마뉘엘 고트랑 건축사사무소 / 마뉘엘 고트랑



Location Paris, France **Function** Office facility **Site area** 5,800㎡ **Client** Gecina **Structure engineer** Khephren **Photographer** Vincent Fil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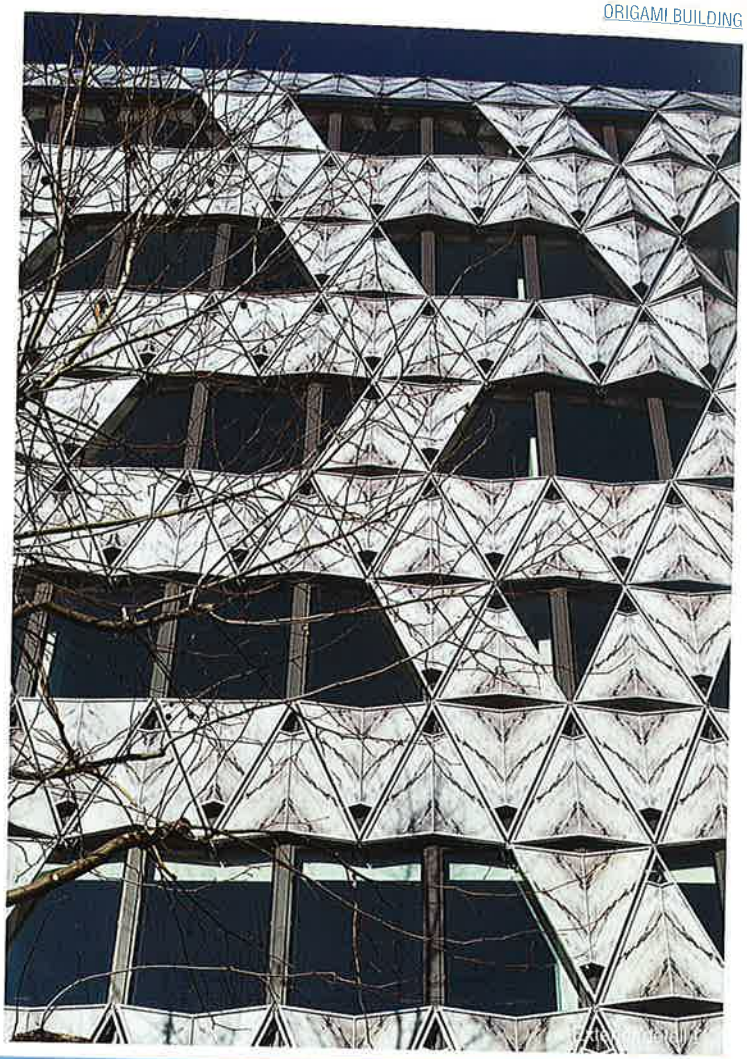
대지위치 프랑스, 파리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800㎡ **사진** 빈센트 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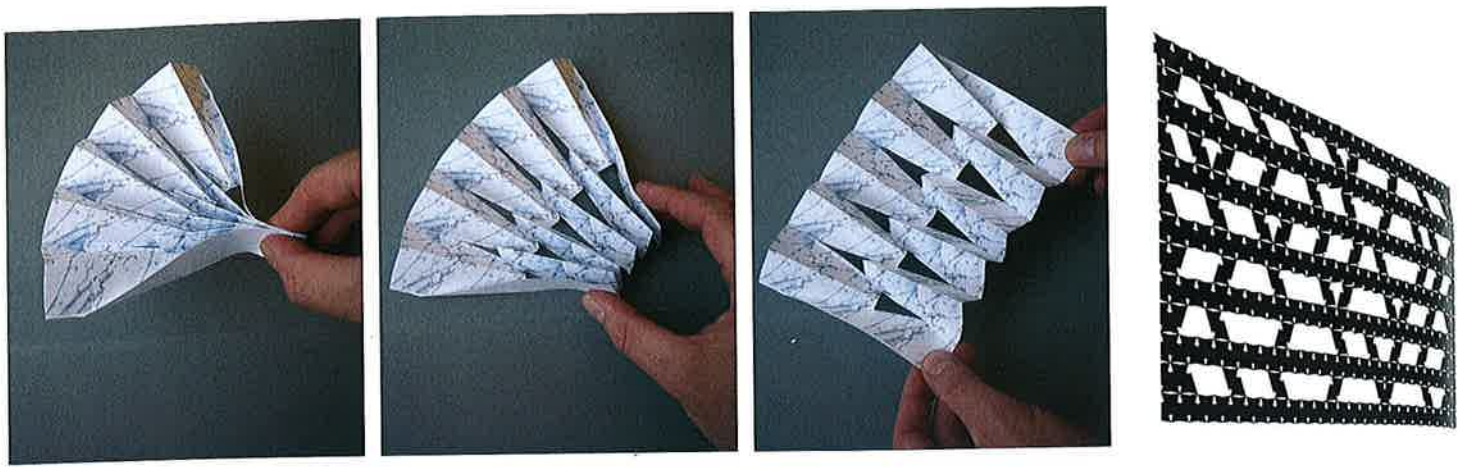
Site plan

Front facade

This office building stands on avenue Friedlan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c de Triomphe and Place de l'Etoile, in a luxurious Parisian neighborhood. The project was implemented in two parts: the main building on a 20m wide stripe on the avenue, and an extension in the rear, between two courtyard gardens. At the ground floor level, the lobby plays on transparency between the street front and the main garden. The building in the rear of the lot is more private, and it is there that the cafeteria and meeting rooms are laid out, with garden space on both sides. The unusual location of the site led us to design a project that would embrace and take advantage of the view and immerse into the natural light. An emblematic showcase of the building – the main façade is mostly glass, partially covered with a second-skin of screen-printed marble pattern. The rendered effect is a tremendous origami and the view of this delicate folded marble can be enjoyed both from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building. The panels are composite, a film of marble mounted on a twin layer of glass. The symmetrical panels that are folded and assembled by two form an 'open-book' pattern and thus highlight the design of the veins of the marble. This second skin is translucent and acts as a breast wall to ensure privacy as well as filter daylight, creating a soft interior atmosphere. Marble folds create a vibration along the 30m long front. At both ends, in continuity with the façades of neighboring buildings, the origami becomes calmer and flattens out. But in the central part it forms a delicate bas-relief. The project then develops into the depth of the site with the same objective of clarity while adding a strong presents of plants. The offices roofed with large lawns weave around the two courtyard gardens. The lobby functions as a meeting point of these two atmospheres – the urban and sophisticated of the main façade, and the more private and verdant of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The interior spaces were designed in a contemporary spirit, highlighting the luminous atmosphere with light-colored and soft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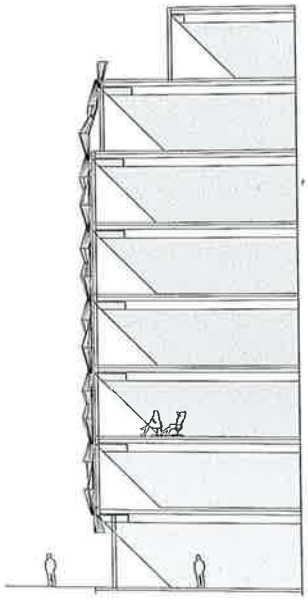


Exterior detail (night)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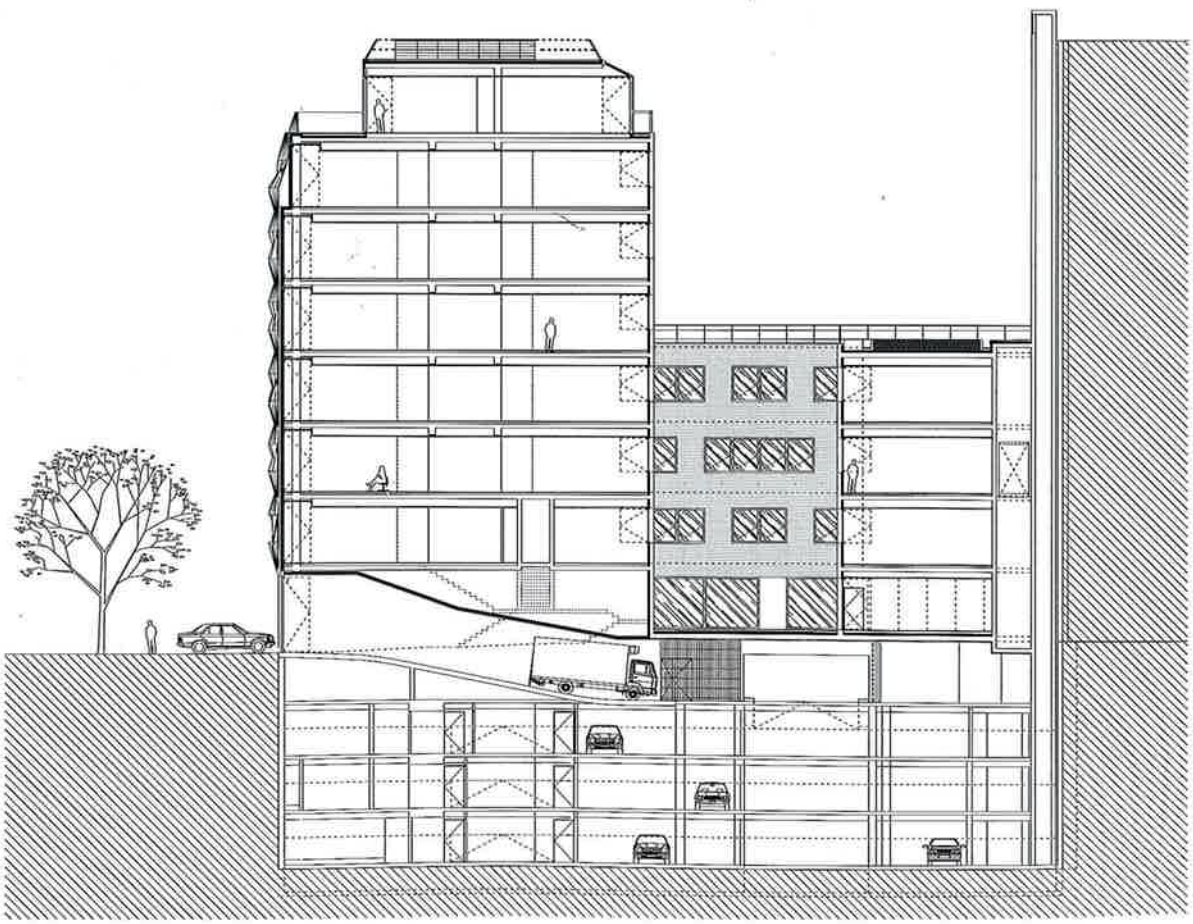
이 오피스 건물이 서 있는 곳은 파리의 호화로운 지역, 개선문과 플라스 드 레□에 바로 인접한 프리드란드 가다. 이 프로젝트는 가로에 있는 20m 길이의 띠 모양 구획에 서 있는 본 건물과, 2개의 뜰 정원 사이에 놓인 후미의 증축 건물의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상 층에는, 로비가 길가 쪽 전면과 주 정원 사이에서 들여다보이는 공간을 연출한다. 대지의 후미 쪽 건물은 더 내밀한 것으로, 여기에 카페테리아와 회의실들이 배치돼 있고, 양편에 정원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지의 특이한 입지로 인해 우리는 조망을 껴안아 활용하면서 자연광 속으로 흠뻑 빠지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건물을 상징하는 쇼케이스 라고 할 정면에는 대부분이 유리인데, 부분적으로 스크린 인쇄된 무늬가 그 위에 또 다른 스킨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하여 대단한 종이접기 효과를 연출한 셈인데, 이 섬세하게 접은 대리석의 모습을 건물의 안팎에서 모두 즐길 수가 있다. 패널은 2겹의 유리 위에 대리석 필름을 올려놓은 혼성 방식이다. 접어서 2개씩 조합한 대칭형 패널들은 '펼쳐진 책' 무늬를 만들어서 대리석 결 디자인을 두드러지게 해 준다. 이 두 번째 스킨은 반투명으로서 내밀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낮 시간의 일광을 걸러서 부드러운 실내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해 주는 흉 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리석 접힘 구성으로 30m 길이의 전면을 따라 진동 효과도 창출된다. 양 끝으로는 인접 건물의 전면들과 이어지면서, 종이접기가 더 차분해지고 납작해진다. 하지만, 중심 부분에선 섬세한 얕은 돋을새김을 형성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그 다음 명확성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대지의 앞에서 뒤까지의 깊이 속으로 전개되는데, 바로 식재가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잔디를 옥상에 얹은 오피스들은 2개의 뜰 정원을 끼고 돌아가는 식으로 배치됐다. 로비는 건물 주 전면의 도회적이고 세련된 모습과 다른 쪽의 녹음이라는 두 가지 분위기가 만나는 접점 구실을 한다. 내부 공간들은 현대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서, 빛이 나는 분위기에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들로 돋보이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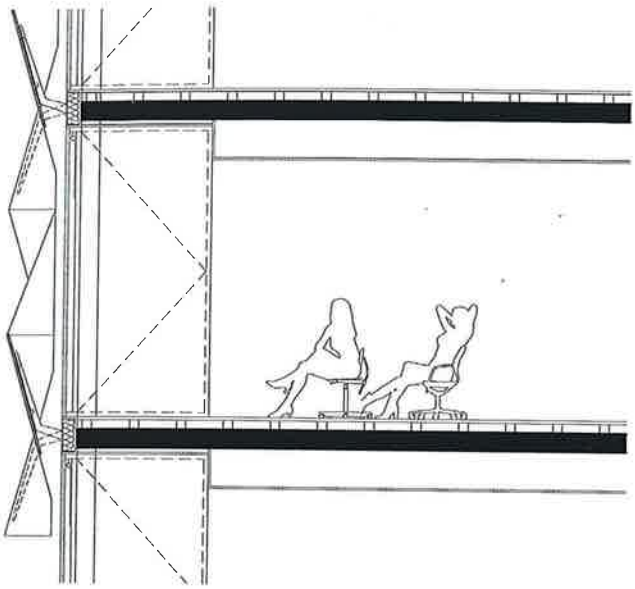
Section I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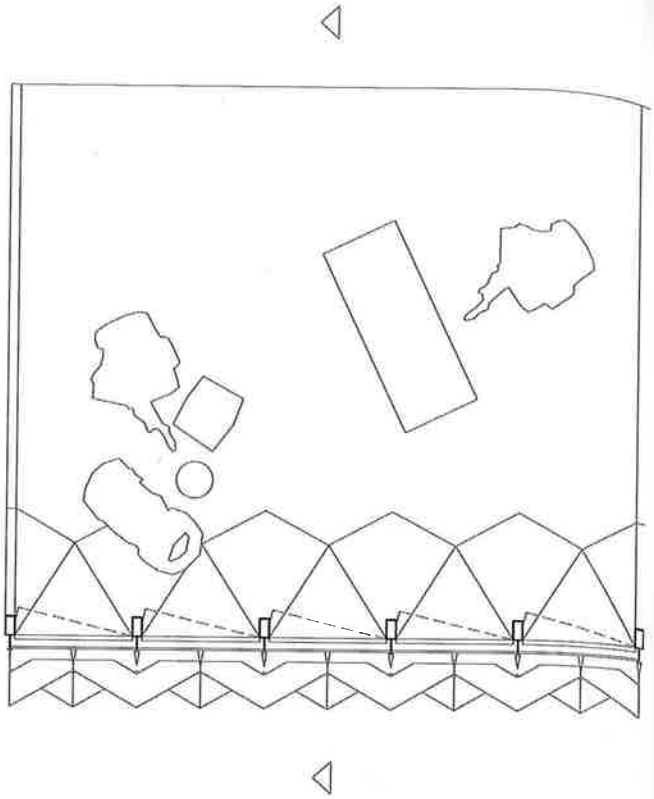
Terrace



Sect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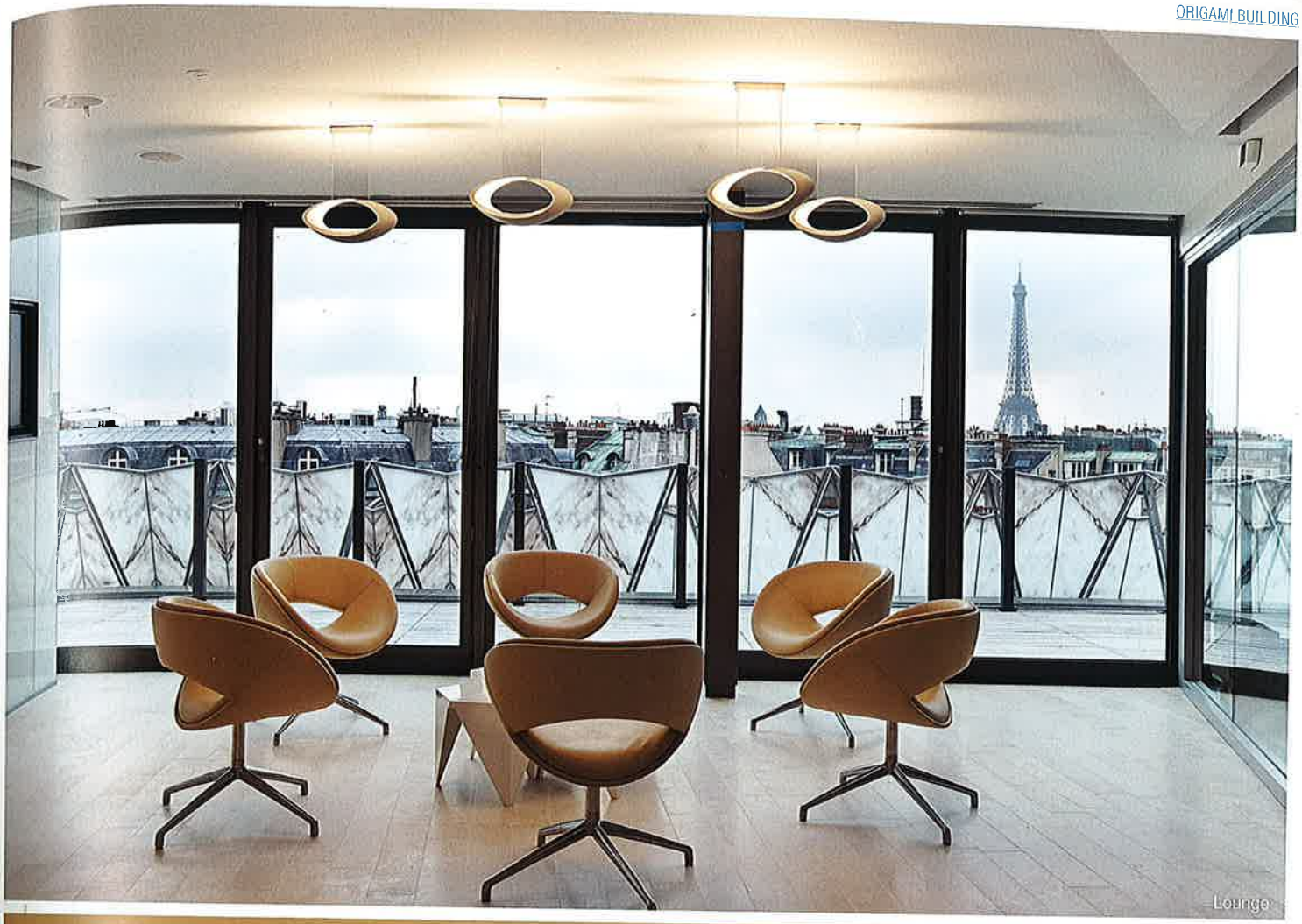


Facade detail



Plan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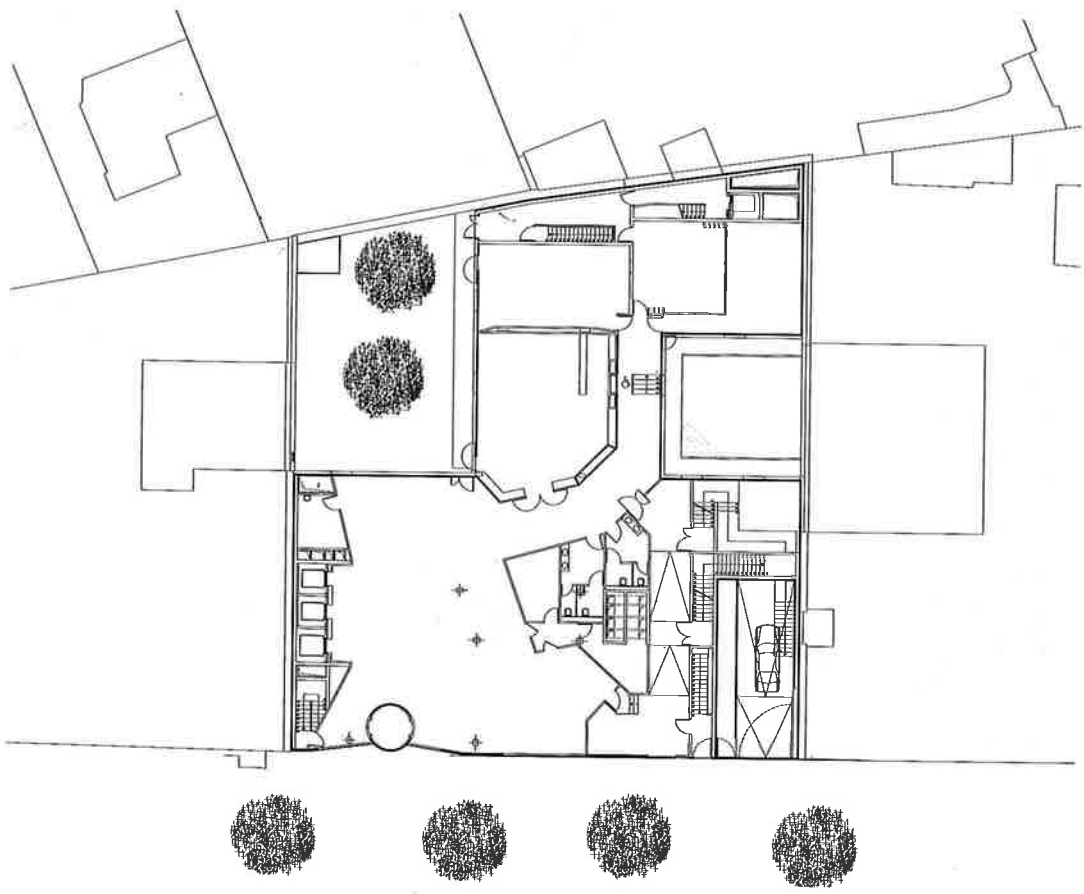
View from office



Lo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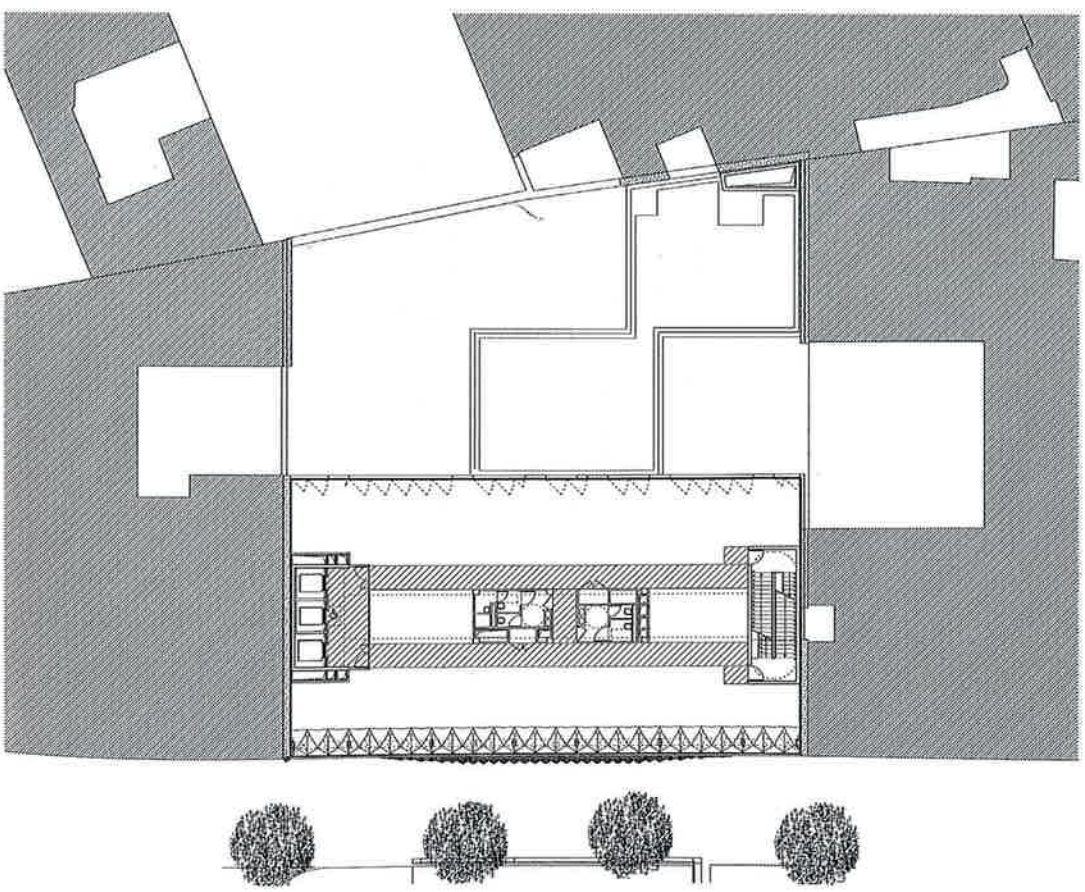
Office

Hall



First floor plan

Corridor



Sixth floor plan